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 뜻 모아

무주군은 25일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이 고향사랑기부금 340만 원을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무진장축협 임직원들이 무주군 발전을 응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마음을 모은 것으로, 기탁식에는 송제근 무진장축협 조합장과 전태술 상임이사, 최재문 경영본부장, 이해근 무주지점장이 함께했다.

무진장축협 송제근 조합장은 “그동안 무주군민에게 받은 성원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다소나마 돌려드리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진장축협은 무주읍과 안성면에 사업장을 둔 지역축협으로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협약으로 한우고기와 떼지고 기를 납품하고 있다.

무주군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전파·머루와인, 한우와 떼지고기 등 농·축산물 39종을 선정(2022.12 ~)해 전달해 오고 있으며, 올해 6월부터는 주가답례품을 통한 운영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많은 분들의 무주사랑에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금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살기 좋은 무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전문선 기자



재전진안군청년향우회, 고향사랑기부의 날 운영

진안군 출현원들의 고향사랑 실천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진안군은 25일 재전진안군청년향우회(회장 허성건)가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의 날을 운영하고 200만원을 모금하여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전진안군청년향우회는 지난 2017년 전주에서 활동 중인 진안 항우 가운데 40·50대 연령층을 주축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활기와 열정을 바탕으로 진안군 항우회에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으며, 고향의 후배들과 항우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풀어나가고 있다.

이번 기부는 허성건 회장을 비롯한 항우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며, 이들은 내 고장 진안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고 앞으로도 진안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에 기여해 봉사에 의지를 밝혔다.

허 회장은 “진안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어 회원 모두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항우분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여 진안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성 군수는 “고향 진안을 잊지 않고 타지에서도 진안을 응원해주시는 항우회원님들 덕분에 진안군이 더욱 힘을 내고 있다.”며 “재전진안군청년향우회원들의 소중한 마음에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진안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준성 우태만 기자



남원 운봉농협, 원로조합원 경로잔치

남원시 운봉농협(조합장 오용섭)은 지난 24일 운봉읍 서립공원에서 지역 내 원로 조합원 700여 명을 모시고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이 참석하고 운봉농협청년회원과 부녀회원들이 지원봉사자로 나섰다.

이날 행사는 운봉농협단의 풍물놀이와 주민으로 구성된 취미동아리의 난타, 장고춤 공연, 색소폰 연주, 라인댄스 등을 뽐내며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원로조합원들은 “뜻 깊은 시간을 보내게 해 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협동에서 농업인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학생들의 의로운 행동 무척 대견해”

군산상일고 고훈·오정훈 학생·중앙고 이진석 학생, 보령경찰서장 표창 받아

군산지역 고등학생들이 난간에서 투신하려는 남성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훌륭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에 군산상일고 고훈·오정훈 학생과 군산중앙고 이진석 학생이 25일 보령경찰서장 표장을 받았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석배 경감은 이날 군산상일고를 방문해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훈 학생과 오정훈 학생에게 보령경찰서장 김서장을 대신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세 학생은 지난 4월 29일 23시 45분경 충남 보령시 신죽동 소재 한 모텔 3층에서 자살을 시도 하려는 50대 남성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50대 남성이 자살을 기도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됐고, 군산 고교생 3명이 길을 가던 중 난간에서 투신하려는 50대 남성을 발견했다.

군산상일고 고훈 학생이 남성이 투신한 객실 문 앞에 도착해 잠겨있는 방문을 부수고객실로 진입했다. 그 뒤 도착한 군산상일고 오정훈 학생과 함께 있던 남성의 동료까지 합세해 자살 시도 남성이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20분 이상 붙잡고 사투를 벌인 끝에 50대 남



성을 구조하게 됐다.

군산상일고 고훈 학생은 ‘난간에 매달린 아저씨의 무개를 이겨내지 못하고 순서에서 미끄러졌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너무 무섭다’고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군산상일고 임영근 교장은 “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이 무척 대견스럽다”면서 “우리 학생들의 선행이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마약범죄 예방 SNS 릴레이 동참

심덕섭 고창군수가 미약범죄 예방을 위한 SNS 릴레이 이 캠페인 ‘NO EXIT’에 동참했다.

심덕섭 군수는 25일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미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심 군수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촌마을에서 암구비와 대마 재배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미약은 시작하면 절대 끝낼 수 없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끔찍한 범죄다”고 말했다.

이어 “미약 범죄로부터 안전한 미약 청정도시 고창을 만들기 위해 혁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과 미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NO EXIT’ 캠페인은 지난달 26일 시작됐다. 자리를 밟은 사람은 미약범죄 예방 참여를 독려하는 인증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올리고 캠페인을 이어갈 사항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익산 진경여고,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 3년 연속 수상

익산 진경여자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10명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출전해 3년 연속 청가자 전원 수상이라는 평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국내 단일요리대회 중 최대 규모로, 농림축산부 등 22개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이 후원하고 (사)한국조리협회가 주최해 매년 이뤄지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대만·태국·일본 등) 및 전국 총 1,614팀 4,257명의 조리인이 참가해 솜씨를 뽐냈다.

이에 진경여고는 라이브코oking(단품요리), 라이브코팅(3코스), 테이블서비스경연, 국제요리경연부문에 출전, 고등부 라이브코팅(코스)/단품요리·단품요리·3코스경연에서 송다영, 김슬기, 문주란, 전다은 학생이 ‘소담’팀을 이뤄 최우수상(협회장상)과 금상을 수상했다.

또 고등부 라이브코팅(코스)/단품요리·3코스경연에서는 박현영, 김슬기, 문주란, 전다은 학생이 ‘늘해랑’팀을 이뤄 금상을 수상했다.



상을 받았다.

이어 테이블서비스경연에서는 최희원, 최윤정, 김소은, 김희소 학생이 팀을 이뤄 테이블 세팅과 테이블서비스경연으로 금상 및 최우수상(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상)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생활관 학생들, 버스킹으로 ‘화합’

지난 24일 전북대학교 생활관 식당 앞 배드민턴장에서 생활관 버스킹 무대가 펼쳐졌다.

이에 따르면 버스킹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자의 숨은 기량을 뽐내며 관람하는 생활관 학생들과 함께 잔잔한 음악으로 소통했다.

전북대학교 생활관 생활관 자치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생활관 장미 버스킹’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활동이 위축돼 있는 5,800여 명의 생활관 학생들을 위로하고, 앤데믹 이후 학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공연에는 모두 17개 팀이 참여해 댄스곡·발라드 무대가 이어졌고 특히 외국인 학생들도 4개 팀이 참여해 한국생활의 고단한을 동료들과 함께 나눴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자봉센터, 중화산1동 어르신 150명 위한 사랑 나눔

전주시자봉센터(이사장 최이천)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 이동 봉사활동을 3년 만에 재개했다.

전주시자봉센터와 원불교 회관교당에서 노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와 더불어 문화공연과 건강 물불까지 제공하는 515회 사랑의 희망열차’ 나눔 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종합운동장, 해비리기념관, 배암생분단 등 7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했으며, 전북워너스MC협회(회장 이정표)의 사회로 초대기수 공연과 전주시생활체조지도자회, 색소폰 연주 등 재능기부 봉사자들의 흥겨운 문화공연도 준비됐다.

또한 건강 물불을 위해 △나눔서금요법봉사단(서금요법) △온새미로봉사단(발마시지) △로사헤어미용봉사단(이미용) 등의 전문봉사자들이 동참했으며, △행복한밥상 푸드봉



사단(회장 안영순)이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자봉센터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도시락과 밀반찬 전달 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해왔다.

/김옥기 기자



호원대, 전북청년마음건강센터와 협약 체결

호원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25일 전북청년마음건강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업무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호원대학교 학생 및 지역사회 청년층의 심리·정서적 지원, 전문상담사의 역량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전혜경 전로심리상담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청년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양센터의 발전 및 지역 사회 실리 인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전로심리상담센터는 실습경험학습 스트레스관리, H-미음방역, 행복코끼리네이터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전로나비게이션, 가치관교정, 메타버스를 활용한 진로정보팀색 집단상담, 사례진로멘토링, 의사결정훈련, 협직자 진로직업멘토링, 진로동아리 지역그린진로교육 등 재학생의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호원대 평생교육원, 전북도미술대전 한국화 입상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수목신수화반 수강생이 ‘제55회 전라북도미술대전’ 한국화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상작자는 한국화 부분 우수상에 최영란, 한국화 부문 입선에 강태철·김인숙·박현우·양준철·선은영 등이다. 이들은 김문철 명예교수의 지도로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다. 수상작은 22일~2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에 전시되고 있다.

홍선택 원장은 “수강생들의 미술대전 수상을 축하드린다”며 “전주대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교육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평생교육원에서는 일반교양아카데미 및 전문자격과정, 학점은행제, JJ골프아카데미 과정 8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